## 이렇게 들었다 · 도·감청

# 주지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내 전화를 누가 엿듣고 있다" "휴대폰으로 하는 대화도 마음놓을 수 없다."

남의 말을 엿듣는 도청 감청이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정보원 감청기구 및 감청실태' 폭로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 감청과 감청 남용이 심각한 인권침해로 여겨져 거듭 논란의 대상이 돼왔으나 정작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원점만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도·감청 뿐 아니라 몰래카메라까지 극성이다. 도청과 감청, 몰래카메라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도청과 감청은 도둑행위와 같다. 사람사이의 불신을 증폭시킨다. 남의 것을 허락없이 훔치는 도둑질은 탐욕에서 비롯되고 탐욕의 과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누누히 강조하셨다. 경전에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탐욕은 독과 같으니 그것에 닿으면 치열한 불꽃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럼으로 탐욕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독에 의해 해를 입는 것이어서 마치 불을 땔나무에 참거해 주는 것 같아서 그 불꽃은 영구히 꺼지는 일이 없게 된다. 저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꾸 열뇌만 더하게 해 가서 마치 나방이 등불을 보고 날아들어 그 몸 타는 줄을 모르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중생의 욕망에 집착함이 이러하니라. 〈제법집요경〉

▩삼가 도둑질하지 말 것이니 도둑질하면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한다. 탐심을 일으켜 남의 물건을 훔치면 후보(後報 현세에서 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내생에서 그 보를 받는 것)에 축생이 된다. 〈범천신책경〉

▩탐욕은 걱정을 낳고 탐욕은 두려움을 낳나니 탐욕 곧 없은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할까 보냐. 〈법구경〉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주인이 있는 물건이든 도둑들이 훔친 것이든 바늘 한개, 풀 한포기라도 자신이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수단을 써서 훔쳐서는 안된다. 〈범망경〉

▩욕심이란 더럽기가 똥덩이 같고 욕심은 독사같아 은혜를 모르며 욕심은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에 바른 꿀과 같고 쓰레기터 속에 꽃이 피듯 욕심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나 욕심은 물거품처럼 허망하다.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삿된 소견(邪見)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올바른 소견(正見)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삿된 다스림(邪治)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바른 다스림(正治)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삿된 말(邪語)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바른 말(正語)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삿된 행동(邪業)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바른 행동(正業)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증일아함경〉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탐욕인바 범부는 미혹하여 그것을 즐거운 줄 그릇 생각하나 지혜있는 사람은 그것이 괴로움인줄 알므로 탐욕이 눈에 띄는 대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내어 끝이 없다면 마치 소금물을 마심으로써 그 갈증을 더욱 심하게 하는 것과 같다. 〈성실론〉

▩남에 대해 위증하여 형법에 걸리게 하지 말며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다투어 남의 마음을 상하게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아함정행경〉

▩차라리 큰 불구덩이에 들어갈 지언정 탐욕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대승계경〉

# 불교TV 회생을 믿으며

**목.소.리**

나성근
불교TV프로듀서

"불교TV는 과연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은 천덕꾸러기인가?"

물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필요하다"고 누구나 말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교TV는 곧 공중분해될 운명에 놓여 있다. 이자조차 내지못하는 금융권 채무 압박과, 각종 부채, 이로 인한 수신료의 가압류. 또 밀린 임대료를 청산하지 못해 이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불교TV는 개국 5년 동안 영상포교사로써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믿는다. 이미 그동안 제작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공중파와 대만 등지에 수출 판매되었고, 태국과 대만 등지에서는 불교TV를 모범사례로 연구해 자국의 불교방송을 설립하기도 했다. 특히 각종 사회적 병폐와 음란물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불교TV의 역할은 너무나도 막중하다. 지구촌을 한군데로 묶는 인터넷시대에 영상매체인 불교TV가 살아있어야 함은 백번을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경영미숙과 주식공모 실패,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표이사의 종단개입 등은 불교텔레비전의 회생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새로 취임한 허문도사장 역시 원칙없는 인사권 남용과 독불장군식 경영으로 직원들의 불만을 사왔다. 직원들은 지난 IMF이후, 상여금은 고사하고 월급마저 50% 밖에 받지 못하는 생활을 계속해왔고, 최근에는 은행빚에 몰려 퇴직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사태가 이어졌지만 퇴직금마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TV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지난 5년여 동안 축적된 영상물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자료들이며, 위성방송과 인터넷 시대를 맞는 이즈음 불교문화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포교의 매체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엄청나게 낙후되어, 결국 낡고 뒤떨어진 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교TV는 꼭 회생돼야 하고 꼭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 스님들 왜 싸우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스님, 작년 겨울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지난해 겨울을 넘겼는지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먹물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이나 명예를 좇을려면 왜 출가를 했습니까? 부처님을 믿는 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스님들이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꼴을 보인다면 당장 그 먹물 옷을 벗으십시오. 욕심이 잔뜩 든 얼굴로 서로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은 싸우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땅의 문화와 정신의 한가운데 우뚝 섰던 불교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싸우는 것이 대의를 위한 일이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대의를 위해서라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 재가불자들의 눈에는 불교를 파괴시키려는 욕심으로밖에 안 비칩니다.

사실 불교를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은 알게 모르게 보살행을 행하고도 말하지 않고 작지단 표시나지 않게 부처님법을 따르는 많은 불자들 덕분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싸우는 스님들, 마치 사찰을 악귀들의 싸움터처럼 보이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불교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다는 것 아신다면 더이상 추한꼴을 보이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십시오.

저는 올해야 수계를 받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새벽기도 다니는 할머니 따라 절을 내집처럼 드나들었지만 행여 내가 한 행동이나 잘못때문에 다른 이들 눈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쫏쫏…"하는 지적을 들을까봐 조심하면 살았습니다. 불교가 포교에만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싸우는 모습을 외부로 노출시켜 부처님 이름에 먹칠하고 불자들의 발길을 막다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당사자 스님들의 참회와 자중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경인(서울 노원구 상계동)

## 또다시 스님들 폭력사태 불자라는 자긍심에 상처

폭력사태가 난지 불과 1년도 안돼 또다시 스님들의 폭력사태를 보게되다니 실망이 겹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TV나 신문보기가 민망스럽고 어디 가서 불자라고 얘기하기 조차 부끄럽습니다. TV뉴스에 나온 폭력 휘두르는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지만 과연 그들이 스님들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법회때마다 스님들께서는 "마음을 비워라"고 강조하십니다. 또 '일체유심조(一切惟心造)'를 가르치시는 스님들께서 승복을 입고 각목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른 사실은 어떤 이유로든지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폭력으로 인해 스님들께서 상처를 입는 만큼 불자들은 더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요. 미래의 불자들인 어린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용히 선방에서 참선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법에 의존해 해결하려 하시지 마세요. 그 무엇보다도 수승한 부처님법을 잘 알고계신 스님들께서 부처님가르침으로 푸셔야 한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김갑숙(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 노골적 사찰매매 광고 게재 신중하게 검토를

현대불교신문을 열심히 읽는 독자다. 그런데 요새 들어 사찰매매 광고가 대폭 늘어난 것 같다. 사찰을 성소(聖所)요 기도처로 생각하는 우리같은 불자에게는 마치 주택매매 처럼 사고 파는 행위가 선뜻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래서인지 가격까지 노골적으로 나와있는 그런 광고를 보게되면 사찰이 한낱 매매물로 전락된 것 같아 씁쓰레하다 못해 오늘날의 물질화된 불교모습을 보는 것 같아 우울하다.

가능한 그런 사찰 매매 광고는 싣지 않았으면 싶다. 또 숨어서 보살행을 하는 불자들을 많이 발굴해 소개했으면 한다. 부처님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불자들을 본받아 그러한 보살행자들이 더욱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김기민(충북 제천시 신월동)

## 산사에서 보낸 하룻밤 속진찌든 심신 정화 기회

자장율사가 창건한 금산사는 미륵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사찰이다. 최근 도반들과 함께 금산사로 참배를 다녀왔다. 어두컴컴한 초저녁 저수지에서 산사까지 들어가는 주변분위기가 참 좋았다. 스님의 안내로 향적단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앞뒤 방문을 열어젖히자 풀내음이 가득한 신선한 산공기가 속진에 찌든 심신을 정화시켜 주는 듯 했다. 새벽 3시 30분. 작은 듯하다가 점점 커지고 짧은 듯하다 길어지는 장단과 강약의 조화를 이루는 은은한 도량석 소리에 눈을 떴다.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 부처님도량으로 인도되는 듯 했다. 법당으로 가 한배한배 절을 올리고 있자니 스님들께서 조용히 들어오셨다. 앞줄에 스님들이, 뒤줄에 신도들이 앉아 의식에 따라 예불을 올렸다. 예불이 끝나고 다른 분들은 법당을 나갔지만 우리 일행은 남아 〈천수경〉 〈금강경〉에 맞추어 단전호흡을 하며 선정삼매에 들었다. 잡념이 완전히 떨쳐지지는 않았지만 고찰에서 하는 참선이라 그런지 40분간의 좌선에 오롯 몰두할 수 있었다. 참선을 끝내고 나오는 도반들의 얼굴이 평소보다 한층 해맑아 보였다. 부처님향기가 가득 배여있는 금산사 가람에서의 새벽예불과 참선은 세간에 돌아와서도 내게 힘과 격려를 주었다. 자주 산사의 향기를 마셔야겠다.

유영열(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 독자 詩

### 고향모교

교육논리 경제논리 혼동하는 교육행정
구조조정 학교폐합 홍익인간 허구로다
한쪽에선 귀농정책 한편에선 학교폐지
우왕좌왕 농정행정 없어진놈 잔등밟기
열린교육 하자더니 학교교문 닫아놓고
전인교육 외치더니 인정사정 볼것없네
농촌마을 문화센터 정든학교 없어지니
어느누가 고향가서 오손도손 살것인가
이지경이 되었으니 있는사람 다떠나고
오는사람 쉴곳없어 농민정책 살농정책
형제자매 직장잃어 갈곳만은 고향인데
잡초무성 모교보며 한숨짓는 옛친구여
하늘높이 추석만월 온집안을 밝히는데
교실모퉁 귀뚜라미 밤지새며 슬피우네
흰머리할 거친기침 부모님을 떠나오는
수심깊은 나그네여 천근만근 발길일세

김석태〈시인·수필가〉

## 목탁소리

# 잘 팔리는 불서

김 중 근
〈취재2부 기자〉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정화되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많은 군더더기로 가득차 있음을 반성하게 된다고 아는 이가 추천해 구입하러 왔습니다." 20일 영풍문고 불교코너에서 한 시민은 법정스님의 개정판〈무소유〉를 성큼 집어든다.

최근 조계종 폭력사태가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불교계 위상은 바닥이지만 천진난만한 동자승과 잔잔한 글이 담긴 서화집 〈풍경〉(이레 刊)과 무소유의 의미를 감동깊게 노래한 〈무소유〉(범우사 刊)는 국민적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 두권의 불서는 모두 스님이 지었고 나오자마자 큰 호응을 얻어 베스트셀러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안고있다. 16일 MBC-TV가 9시 정규뉴스에 비중있게 소개했을 정도다.

출판계의 전반적인 불황속에서도 두 불서는 2달여만에 6쇄를 찍었다.

〈풍경〉과 〈무소유〉가 대대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갈등과 혼탁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견디게 하는 영혼의 정화작용과 안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란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마음이 산란하고 외부세계가 어지러울 때 내면의 세계를 충전시키려는 간절한 독자들의 심정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은 불교의 이러한, 세간의 혼탁함과 갈등을 씻어줄 수 있는 청정함과 평화로운 귀의처를 기대하는 것인데 오히려 불교계가 추악한 내분으로 실망을 주어서야 될 말인가.

불교계는 이러한 세상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 천일기도 八百日 전국 禪院長 · 祖室 · 方丈큰스님 특별초청**

###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 선종본찰 (재)선학원 중앙선원은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들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되었습니다. 선학원은 3·1운동을 주도한 국운창출의 원찰이며 해방 이후에는 **이효봉, 하동산, 정금오, 이청담** 대선사께서 한국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늘의 조계종 전통종단을 중흥케 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선학원이 한국선종불교의 聖地임은 自他가 공인하는 事實입니다.

이 時代의 佛敎 聖地인 禪學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의 王師로 계시던 無學大師께서 宮터로 잡은 창덕궁(지금의 비원)의 백토를 가지고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조성한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선학원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은 현재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또한 선학원 중앙선원이 동·하안거 방함록에 전국선원 중 제일 먼저 실려 있던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예로서 웃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三寶님께 발원하며 24년 만의 선학원 단청불사를 계기로 삼아 한국 선종불교 중흥 도량이 될 선학원 대작불사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 歷史的인 佛事에 善男善女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팔란과 고와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아 래

특별초청 법어 **八公山 聖殿庵 會主 哲雄 大禪師**

**산림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9년 음 9월 23일(양 10월 31일) 일요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 화주단**

신도회 · 운영위원회 · 합창단 · 108보리심회 · 선정회 · 청년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 02)732-3327, 720-8583, 720-8584

불기 2543년 음 9월 23일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장

**一柱門 建立을 위한 一人 一燈 萬人萬燈**
**佛事 接受中입니다.**

**千日기도 八百日大法會**

**제9회 한국불교전통선(禪)중흥영산대설법회상**

**八公山 聖殿庵 會主 哲雄 大禪師**

팔공산 성전암 회주 철웅 대선사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 (24년만의 불사) 완료
④ 선학원 선방 및 시민선실 내부공사 완료
⑤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완료
⑥ 일주문 전통양식 건립불사
⑦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三百日 전국선원장 · 조실 · 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設法會上主催 제1회~제10회(매 백일간격으로)

2차
초청법사
· 제1회 화악산 직지사 조실 전관응 대선사 1997. 7. 4(양 8. 3) 성만
· 제2회 법수선원 조실 이성수 대선사 1997. 11. 13(양 12. 12) 성만
· 제3회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이법향 대선사 1998. 2. 23(양 3. 21) 성만
· 제4회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법일보성 대선사 1998. 윤 5. 3(양 6. 26) 성만
· 제5회 화계사 조실 숭산행원 대선사 1998. 8. 13(양 10. 3) 성만
· 제6회 전 조계종 종정 송서암 대종사 1998. 11. 23(양 1. 10) 성만
· 제7회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 대선사 1999. 3. 3(양 4.18) 성만
· 제8회 심각산 보광사 조실 정일 대선사 1999. 6. 13(양 7. 25)

⑧ 선학원 창건 사적비 세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⑨ 한국불교계 정화사 刊行 및 이時代佛敎聖地 宣布法會

◆화 주 단
황자현심 손진여심 오만덕화 박보리성 권지애심 이보현심 박덕순화 이 광 덕 이관음행
박선혜일 김복덕성 윤보광심 민길상심 송 경 현 신 옥 순 김도월행 김마하연 유정혜성
송법성심 정선덕행 정본각성 이법왕자 이지혜장 고만덕성 이보원심 운영위원 및 합창단원

◆신 도 회
명예회장 염무영월
고문 양보타월 이연화심 이 경 회 김명심행 엄공덕화 정본각성
회장 이관음행
부회장 이반야행 최 복 식 유정혜성 황자재심
총무 신성지행 이법왕자
재무 손진여심 신월명심
감사 박선혜월
감사 권법연화
1지역회장 이반야행
2지역회장 유정혜성
3지역회장 최 복 식
4지역회장 황자재심
운영위원일동
합창단단장 유정혜성
총무 김진실행
108보리심회 회장 최 인 순
총무 박보리성
선정회 회장 배 경 주
부회장 박보리성
총무 이 상 희
총무 최 은 섭
운영위원 일동
청년회장 이 상 훈

약도
· 안국역에서 150m
선학원
3호선 안국역
경복궁 ← 안국동 로타리 → 창경궁
종로경찰서
종각

● 전철노선 : 3호선 안국역 하차
● 버스노선 :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8-1, 205, 543, 2, 8, 20, 153)